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튼튼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

2024.1.2.(화) 석간

배포

2023.12.29.(금)
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특수보험2팀	책임자	팀 장	황기현	(02-3145-7466)
		담당자	조사역	김남혁	(02-3145-7470)
			조사역	장 샘	(02-3145-7479)
			조사역	최원형	(02-3145-7467)
	분쟁조정1국 보험분쟁1팀	책임자	팀 장	유명신	(02-3145-5200)
		담당자	조사역	남희정	(02-3145-5225)

**보험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
보험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**

주요 내용

-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
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.

과 제	주요 개선 내용
①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	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(재검사)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
② 부담보 약관의 부담보 해제 요건 명확화	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치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 해제가 가능함을 명확화
③ 원발부위 기준조항의 암 진단시점 등을 명확화	이차성암 진단확정 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회사가 자의적 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약관 명확화
④ 암보험의 갑상선암 진단 방법 명확화	갑상선암의 진단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(FNAC)가 반드시 포함 되도록 약관 명확화
⑤ 암 진단확정 시점 및 병리진단 예외사례 명확화	암 진단확정 시점을 병리학적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,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시 문구 추가
⑥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개선	질병 진단 · 의심소견을 받은 환자가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후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'3개월 이내의 질병 진단 · 의심소견'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포함하여 명확화
⑦ 화재벌금 담보(특약)의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	보험기간 중 실화 등이 발생하였다면 보험기간 이후 벌금형이 확정 되더라도 보상되도록 개선
⑧ 유니버설보험 납입유예 등과 관련된 유의사항 명시	보험료 납입유예 및 중도인출 기능 이용시 유의사항을 약관에 명시 하여 소비자 안내 강화

I

추진배경

-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감독 및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하여,
 -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.


II

주요 개선내용

1 계약전 알릴의무(고지의무)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


- **(현행)**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(고지의무)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(재검사)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나,
 -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(이하 '정기검사') 및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(재검사)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였습니다.

※ 소비자 불만 사례(예시)



◇◇병원('22.1월)

다음은 '18.1월에 확인된 귀하의 갑상선 결절 관련 정기검사('21.12월) 결과입니다. 현재까지 결절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.




보험회사('23.1월)

귀하는 '21.12월에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, '22.2월에 가입한 ▽▽보험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됩니다.

보험가입자('22.2월)

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(재검사)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

☐ 예 ☒ 아니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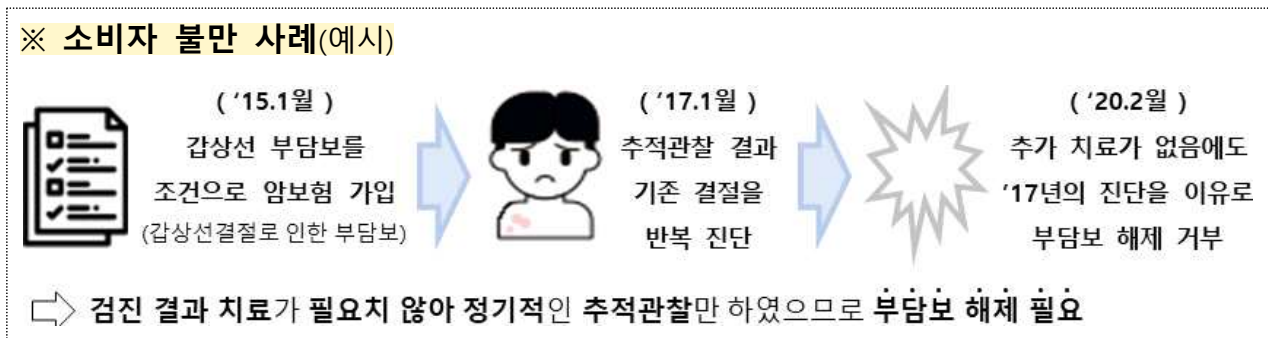


- **(개선)**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 관찰은 추가검사(재검사)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겠습니다.

※ 단,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질병 진단·의심소견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

② 부담보 약관의 부담보 해제 조건 명확화

- **(현행)** 全보험기간 동안 특정부위·질병 부담보를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5년간 추가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부담보가 해제되어야 하나,
 - 피보험자가 병증 악화 또는 추가 치료 없이 정기적인 추적관찰만 하였음에도 부담보 해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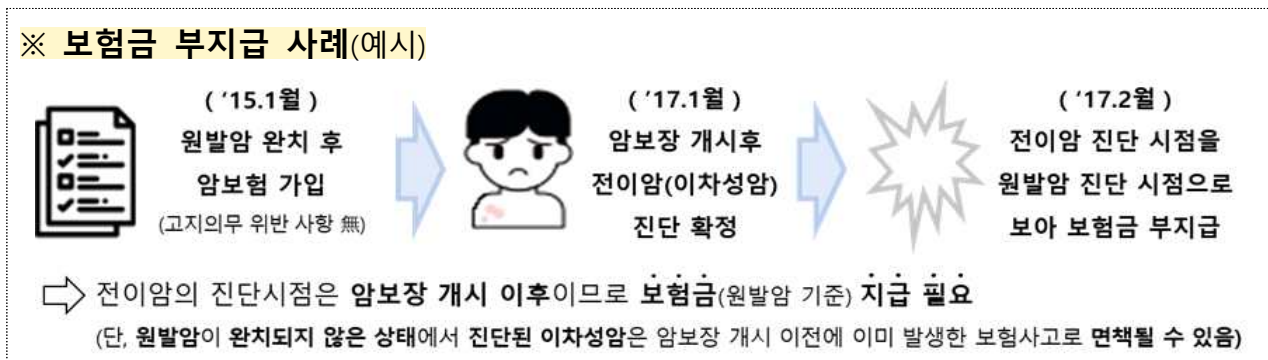


- **(개선)**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치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 해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겠습니다.

③ 원발부위 기준조항*의 암진단시점 등을 명확화

* 이차성암(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: C77~C80)을 원발암의 진행단계로 평가토록 하는 약관 조항

- **(현행)** 원발암이 완치되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근거로 이차성암(전이암)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잘못 판단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

- **(개선)** 이차성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화하겠습니다.

4 암보험의 갑상선암 진단방법 명확화

- **(현행)**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(FNAB) 및 세포검사(FNAC)로 가능하나, 일부 약관은 갑상선암 진단 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조직검사(FNAB)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※ [참고] 갑상선암 진단 방법



◇ **미세침흡인검사(FNA, Fine Needle Aspiration)** : 미세한 주사침을 병소부위에 찔러 조직 또는 세포를 흡인하여 광학 현미경을 통해 진단하는 방법

- ① **미세침흡인 조직검사(FNAB, FNA-Biopsy)** : 병변으로부터 **조직**을 얻어서 검사
- ② **미세침흡인 세포검사(FNAC, FNA-Cytology)** : 병변으로부터 **세포**를 얻어서 검사

- **(개선)** 갑상선암 진단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(FNAC)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.

5 암 진단확정 시점 및 병리진단 예외사례 명확화

- **(현행)** 암보험의 경우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암 진단확정 시점을 병리검사* 결과보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,

* 조직검사, 미세침흡인검사 및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

-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경우* 병리검사 없이도 암진단이 인정될 수 있으나, 약관에 **명확한 설명**이 없어 소비자가 알기 어렵습니다.

*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, 생명·신체기능의 심각한 손상 우려 등으로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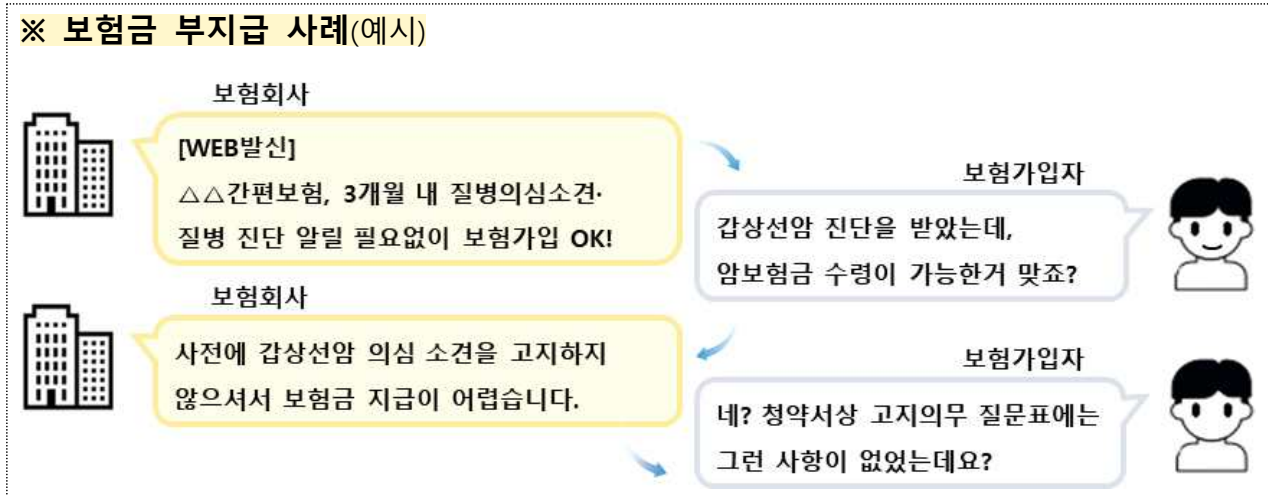
- **(개선)** 약관상 암 진단확정 시점을 **명확히** 하고,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 문구를 추가하겠습니다.

6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(고지의무) 사항 개선

- **(현행)** 일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'3개월 이내 질병 진단·의심 소견'이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질병 진단·의심소견을 받은 환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나,

- 보험금 청구시 질병 진단·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.

※ 청약서상 고지대상이 아니더라도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사실이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한 경우 고지대상에 포함(대법원 96다27971, 2018다28124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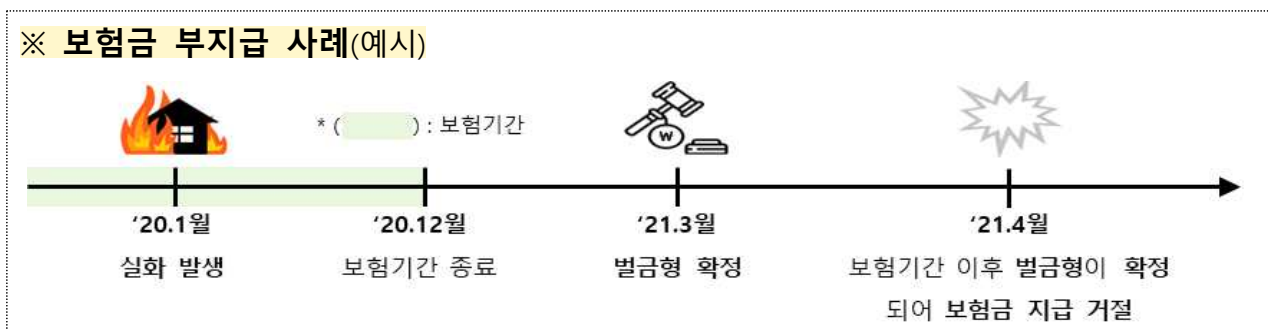


- (개선) 간편심사보험에서 '3개월 이내 질병 진단·의심소견'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.

7 화재벌금 담보(특약)의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

- (현행) 화재벌금 담보(특약)*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'보험기간 중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'로 제한하여 보험기간 중 실화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* 형법 제170조(실화) 등에 따른 벌금 비용 보상(화재보험에 부가)



- (개선) 보험기간 중 실화 등이 발생하였다면 보험기간 이후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보상되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.

⑧ 유니버셜보험 납입유예 등과 관련된 유의사항 명시

- **(현행)** 유니버셜보험에서 보험료 납입유예(또는 중도인출) 이후 최초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(또는 인출금액)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할 수도 있는데,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*이 있습니다.

*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(제2023-12호, '23.5.11.)

- **(개선)** 유니버셜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(또는 중도인출)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약관에 명확히 하고, 소비자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

Ⅲ 향후계획

- 금번 보험약관 개선 내용 중 '① 계약전 알릴의무(고지의무)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'에 대해서는 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(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)을 개정하는 한편,
 - 나머지 개별약관에 대해서는 생·손보험회를 통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약관을 개선('24.4월 시행)토록 하고,
 - 기존 약관 내용을 명확히 한 개선내용(①~⑤, ⑦)에 대해서는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지도할 예정입니다.
- 아울러,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 또는 분쟁 소지가 있는 보험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하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